

우리 사업장의 환경관리는 “내”가 책임진다

■ 편집부



▲ 좌측부터 김숙요 · 정계순 · 박도형 · 박장규 (과장) · 방진수 환경관리인.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신’ 삼성전관(株) 가천공장(대표·박경팔사장)의 환경관리과 가족들은 2년연속 환경관리 모범업체로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비유했다.

영남의 알프스라 일컫어질 정도로 산세가 아름다운 신불산과 영취산 아래 25만평의 부지에 말끔하게 자리잡고 있는

STAFF 모두가 현안 문제점을 심층분석,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했지만, 원폐수농도가 10~1000ppm, pH 1~14까지의 분포를 가진 폐수를 적정처리하기란 말처럼 그렇게 쉬운일이 아니었다.

이곳 가천공장에서는 흑백 및 칼라브라운관, 액정표시판, 모니터 등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79년 중화처리시스템에 의한 폐수처리로 시작된 본사의 환경관리는 폐수처리장을 신설한 '84년을 거쳐 '89년 환경전담부서인 환경관리과를 발족시켜 사업장에 적합한 자체 환경관리규정을 제정, 운영하면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된다.

우선 1단계로 환경관리조직을 정비, 관리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의 완벽한 보완, 3단계로는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및 방지시설의 완벽한 운전관리, 4단계로 규제기준강화에 사전대비, 선진 사업장의 기술을 도입해 지표로 활용한다는 4단계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게 된 것이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신념아래 STAFF 모두가 현안 문제점을 심층분석,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한 노력들을 경주했지만, 원폐수농도가 10~1000ppm, pH 1~14까지의 분포를 가진 폐수를 적정처리하

기란 말처럼 그렇게 쉬운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룹관계사와 동종업체등의 처리방법을 적용하고, 자체적인 경험과 기술력을 총동원하여 발생단계부터 유입·처리까지의 모든 조건을 변형·연구 검토했을 뿐 아니라 전문업체에까지 기술진단을 의뢰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여기에 다사전승인제를 도입, 무허가 배출시설을 방지하고 방지시설의 신·증설과 개조를 통해 관리체제를 구축했으며, 전사원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홍보 교육을 병행하였다. 즉, 경영일선에서 소외시되었던 환경문제를 CCTV와 교육을 통해 전사원의 공감대형성에 초점을 맞춘 결과, 급속도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한다.

여기서, 박창규 환경과장은 비롯한 26명의 정예요원들이 맘으로 일구었던 행로를 좀더 살펴본다.

먼저 대기관리분야에 있어서는 집진기, 흡착탑, 중화탑등의 완벽한 방지시설설치는 물론 용력과와의 CROSS관리로 쾌적한 작업·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다음 폐수처리에 있어서 고질적 문제인 방해물질을 분석, 처리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하여 품질관리에 의한 완벽한 처리시스템을 구성했다. 또한 우수·폐수관망도를 작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했다. 한편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특정·일반폐기물로 엄격히 구분, 보관할 수 있는 오물

환경관리인. 1992.4

2년 연속 모범업체로 선정된 결과는 오염물질발생부터 처리까지 환경관리인과 전사원이 한마음으로, 우리 사업장의 환경관리는 내가 책임진다는 자율관리의 소산이다.

수집장을 설치, 완벽히 분리처리했으며, 일반폐기물과오니류, 건축자재를 처리할 수 있는 자가매립시설을 확충시켰다. 유독물관리 역시, 원류관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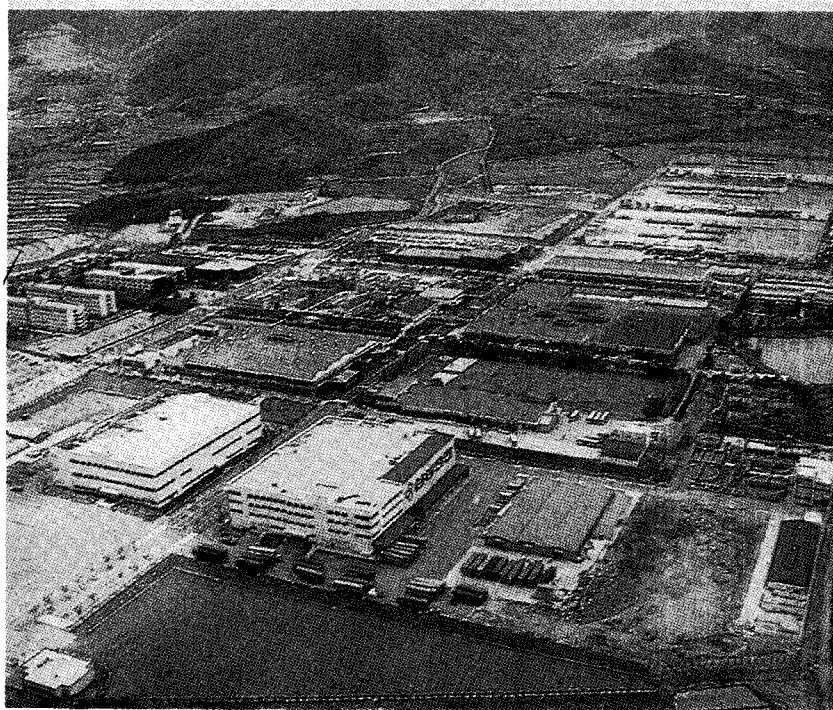
위해 유해화학물질점검을 사업부별 이관관리로 그 책임관계를 명확히하여 효율성을 높였다. 올해에도 이들은 지난 3월 11set(3,620m³/분)의 대기방지시설을 증설했으며, 폐수의 성상별 분리처리 및 농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해 불산폐수 2단처리시설(5,000T/日) 증설공사를 오는 6월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듯 철저한 환경관리와 함께 대외적으로도 자연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현재 삼성은 "자연은 인간 생명의 원천"이라는 정신을 경영이념에

(표)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 및 처리현황

(단위 : ppm)

구분	폐수 방류수					대기 배출가스			
	PH	COD	SS	F	Cr ⁺⁶	먼지	HF	H ₂ S	SO _x
허용기준치	5.8~8.6	100	100	15	0.5	200	5	15	850
현 처리실적	7.0~7.5	30	30	13	0.3	150	4	10	600



포함시켰으며, 계열사에 걸쳐 "1社-1山-1川 보호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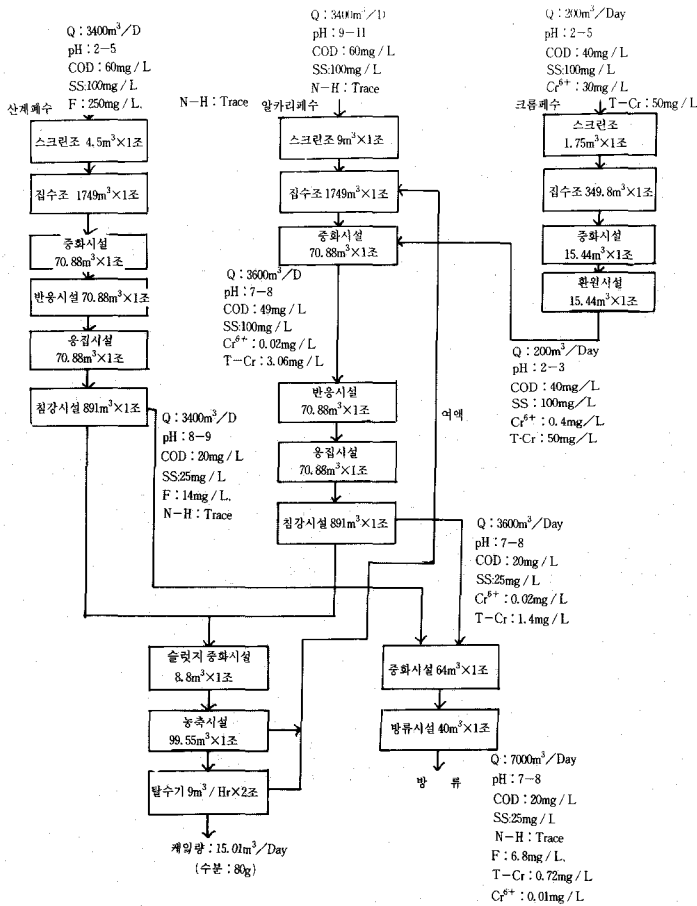
지난 '90년도에는 인근 통도사와 작천정을 대상지역으로 직원 8백70명이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지난해엔 1천 2백명이 참가하여 자연보호캠페인을 벌였다.

이러한 캠페인과 함께 지난



▲진지하게 토론하는 환경관리과(STAFF)의 일대에서 2천년대 초인류 환경관리사업장의 모습을 본다.

◆ 종합폐수 처리 계통도



해엔 영취산일대에 6개의 자연보호안내판을 설치한 것을 비롯 통도사 경내엔 2대의 비닐자동차배분기를 설치했다.

올해에도 산악회가 주관하는 영취산 정화활동과 1천5백명의 인원과 헬기가 동원되는 대규모 환경보호캠페인이 실시될 예정이다.

박과장은 2년연속 모범업체로 선정된 결과를 "오염물질발생부터 처리까지 환경관리인과 전사원이 한마음으로, 우리 사업장의 환경문제는 내가 책임진다"라는 자율관리의 소산으로 설명했다.

앞서 살펴본것처럼 이들은 수질·대기처리에 대한 종합진단으로 문제점보완 및 안정적 처리의 확보가 가능했고, 향후 유독물과 폐기물에 대한 규제 강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을 창출하게 되었다.

'환경'이란 무지속에서 시작된 올챙이적 환경관리가 격동과 시련기를 이겨내고 성장, 안정적인 환경관리를 할수있게 된 본사는 이제 협력업체에 환경지도를 할 수 있는 기술력과 노하우도 축적하게 되었다.

항상 음지에서나마 묵묵히 일했지만 다소 소외시되었던 직종에서 생산적인 부서로서의 변신도 모두 이런 과정에서 빚어진 귀결이라는 방진수환경관리인의 말도 빼놓을수 없다.

본사의 환경팀이 이러한 오늘 모습은 결코 우연도, 요행도 아니었다. 그건 바로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거두는 것'과 같은 것이었리라. ◻